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6. 18.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나는 믿네”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후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 도 자

성경 봉독

창세기 22장 1~18 (중요구절 7~14절)

다 같 이

-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 나눔 ----- 아브라함의 승리 ----- 인도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닥쳐온 부분입니다.

본문 1~2절 “1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얻게 되는 승리 또한 큰 것이며 그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 16~17절 “16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자신 안에서 실현시키기는 못합니다. 그들 안에 시험을 승리로 이끌만한 신앙적 요인이 있어야 시험은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시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그 신앙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의 생애 말년에 주어졌음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의 오랜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듭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욱 깊어진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종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생애의 말년에 겨우 얻은 독자를 바치라니 웬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심한 고통과 번민의 아픔 들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본문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애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하거나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아마도 그 때 하나님께 받을 복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혹 방해되는 요소는 작은 것이라도 없애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라에게 아들을 바치려 간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방해의 요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방해 요소는 다 버리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쁠 것을 예수님이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믿음대로 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이 의아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입니다.

본문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친히”는 “반드시”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한 솟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솟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솟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에게 그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확고한 믿음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나

눌

다 같 이

1.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나눠주세요.
2.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나요?
3.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경험이 있나요?
혹은 망설였던 경험이 있나요?
4.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어린양’같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중보기도 ----- 담임 목사님을 위해 ----- 다같이

1.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도록
3.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4. 일본, 한국 등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5.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마무리 기도 -----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즉각적인 순종, 확고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